

산자부, 지방이전 기업 보조금 50인 이상 기업으로 완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을 현행 100인 이상 기업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했다. 이는 수도권 소재 전체 사업체 12만 164개 사 가운데 현행 지방이전기업 지원대상인 고용규모 100인 이상 기업은 3894개 사로 3.2%에 불과해 지방이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 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이다.

이번 지원기준 개정으로 지원대상기업의 고용 규모 기준이 100인에서 50인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그동안 지방으로 이전해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고용 규모 50~99인 기업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자부는 또한 문화예술영위기업, R&D 전문기업의 경우는 고용 규모가 작은 업종특성을 반영해 30인 이상으로 추가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파견근로자 활용 기업이 많은 현실을 반영해 고용 규모 확인 시 인력공급 업체 파견인원 포함을 허용하기로 했다.

산자부, 서울무역전시장 중소·벤처기업 위한 공간으로 활용

산업자원부는 최근 서울특별시·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서울무역전시장 운영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서울시 등 관련기관은 본 전시장을 중소·벤처기업 지원 및 무역진흥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산자부와 KOTRA는 국내외 업체, 해외 바이어 유치를 적극 유도하고, 서울시와 서울산업통상진흥원(본 전시장 운영기관)은 중소·벤처기업등과 관련된 전시회의 안정적인 개최를 위해 최대한 협력하며, KOTRA는 해외 바이어 유치 및 해외홍보 등을 위해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이승재 산자부 시장개척과장은 "이날 협약서 체결을 통해 서울무역전시장이 향후 계속해서 중소·벤처기업 등을 위한 무역전시장으로 운영될 수 있게 돼 중소·벤처기업 등의 판로확보 및 수출진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산자부, 올해 해외 마케팅 지원에 총 700억원 투입키로

산업자원부는 농림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KOTRA·무역협회 등 수출유관기관과 함께 개최한 '해외 마케팅 정책협의회'를 통해 올해 해외마케팅 지원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산자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수출유관기관이 올해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총 70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원 예산 700억원 가운데 72%인 504억원은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에 투입될 것이라곤 산자부의 설명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국내 전시산업의 육성방안과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대책,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특히 해외 마케팅 지원기관 간 정보교류 등 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부처 간 중복 전시회 방지, 공동관 운영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과 각 지자체별 추진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에 2006년도 사업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중기청, 중소기업 197개 사에 생산정보화 85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197개 중소기업의 POP, CIM, MES 등 생산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85억원의 생산시설 정보화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생산정보화사업'은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생산 공정을 제어·감시해 경영자 및 작업자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생산현장의 정보화사업이다. 이를 위해 컴퓨터와 정보통신 N/W를 활용해 통합생산이 가능한 POP, CIM, MES 등 생산정보시스템 구축비용의 50%(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생산정보화사업은 393개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정보화 관련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에서 사업추진여건, 과제적정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해 197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 66개, 전자 22개, 기계 21개, 금속 20개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별(종업원 기준)로는 50인 미만 41개, 50~99인 65개, 100인~199인 53개, 200인 이상 38개 순으로 분석됐다.

중 기 청 , 공 공 구 매 중 합 DB 구 축 착 수

중소기업청은 '공공구매 종합정보 DB' 구축을 위해 최근 SK C&C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DB 구축작업에 착수했다.

중기청은 이번 DB 구축사업을 위해 1단계로 현재 단체수의계약 및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약 3만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인원 1200여 명을 투입,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번에 구축되는 DB는 국가 조달망과 연계한 포털 시스템으로 공공기관에는 중소기업 및 생산제품 관련 정보를, 중소기업 자체에는 공공기관의 구매·입찰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또 중소기업 간 경쟁의무화 및 관련 신규 제도, 구매목표비율제도 등의 도입에 따른 구매행정 업무를 시스템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기청은 향후 도입되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에 DB등록 기업 위주로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 기 청 , 中 소 지 원 단 벤 처 기 업 에 투 입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윤중용)은 전경련 경영자문봉사단 인력 50명과 삼성, 현대, SK 등 대기업에서 추천한 퇴직 전문인력 100여 명 등 총 150명으로 구성된 K 스코어풀을 결성하고 벤처기업과 부품소재기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대기업 퇴직자 전문 인력풀을 미국의 스코어를 본따 K스코어로 이름짓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들을 올해 안에 전국의 100여 개 중소·벤처기업에 투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K스코어사업은 중기청, 전경련,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3개 기관이 협약을 맺고 대기업 퇴직인력들이 가진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이전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신승주 사무국장은 이번에 등록된 대기업 출신 전문인력 에 대해 하루 14만 8000원의 근무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근무수당 중 11만 1000원은 정부가 부담하고 업체에서는 3만 7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코 스 닥 , 벤 처 시 설 투 자 증 가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본부장 광성신)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기업 가운데 벤처기업의 지난해 시설투자 금액은 총 3222억 1900만원으로, 지난해 2040억 2500만원 보다 57.93%가 증가했다. 벤처기업의 시설투자 금액은 지난해에도 2002년에 비해 71.14%나 늘었다. 이에 비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일반기업의 시설투자 금액은 2002년 7573억원에서 2003년 4440억원을 거쳐 지난해에는 3200억원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올해 5월까지의 시설투자 금액은 일반기업이 지난해보다 76.62% 증가한 3345억 6700만원인데 비해, 벤처기업의 경우 21.03% 감소한 1066억 2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적으로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올해 시설투자 금액은 44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투자금액 6422억원의 68.7%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스닥 시장본부 측은 지난 2002년 이후 3년 만에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시설투자 금액이 처음으로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허정보원, 중소·벤처기업 특허출원 지원 활성화

한국특허정보원(원장 유영기)은 6월 9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허영섭)와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상호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의 특허출원지원 및 특허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허청 산하 특허기술정보서비스 전문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KIPI)과 민간연구기관의 종합육성 및 지원, 산업 기술 정책개선사업 등을 수행하는 민간 연구소 종합지원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는 이날 산기협 회장실에서 업무협약 조인식을 갖고 양 기관의 원활한 업무협력과 상호 유대증진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지원의 성공적인 수행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 기술동향 조사분석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조사·분석 연구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 해소 및 특허정보, 특허분쟁 등에 대한 상호 세미나, 워크숍 실시 ▲중소·벤처기업 특허출원지원을 위한 자료의 수집 분석 등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교류 및 공동 활용 등이다.

한국특허정보원 유영기 원장은 “이번 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연구 개발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화는 물론 특허정보의 활용 확산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국내 산업발전의 가속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5년도 여성벤처 투자마트 개최

한국여성벤처협회는 6월 23일 코엑스에서 2005년도 여성벤처 투자마트를 개최한다.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SEK2005] 부대행사의 일환으로
동 행사기간 (6월 22일~25일) 중 전자신문과 공동주관으로 개최한다.

- 주 최 : 중소기업청
- 주 관 : 한국여성벤처협회, 전자신문
- 대 상 : 정보통신 분야 3개 기업
(우암닷컴, 시은디자인, 휴먼엘씨에스코리아)

- 일 시 : 2005년 6월 23일(목) 오후 3사~5시
- 장 소 : 코엑스 3층 330호
- 문의처 : 한국여성벤처협회 사무국 박희용 팀장
TEL : 02-6009-8505, FAX : 02-6009-8502

제2회 인재경영 포럼 개최

취업, 인사문화를 선도하는 인크루트에서는 기업의 비전을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HR전략을 소개하는 ‘인재경영 포럼’을 개최한다. 제2회를 맞는 이번 포럼은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인재 선발, 육성, 관리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안내

- 주 제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인재 선발, 육성 및 관리 전략
- 일 시 : 2005년 6월 21일(화) ~ 6월 22일(수) (2일간)
- 장 소 : 서울 팰레스호텔 (지하철 7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 5번 출구
1분 거리, 2일간 무료주차 가능)
- 주 최 : 인크루트 경력개발연구소, 월간 인재경영
- 후 원 : 벤처기업협회, 매경ECONOMY, 한국인사조직학회

개요

- 공 통 : 인재경영 포럼 참가자 전원에게 월간 인재경영 6월호 무료제공

- Track A 참가자 : 월간 인재경영 1년 정기구독자(구독 신청자는 Track A 참가비 10% 할인)
- Track B 참가자 : 원-원 파트너십 도서 무료 제공
- Track C 참가자 : 나비(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 도서 무료 제공
- Track D 참가자 : 팩토리얼 파워(21세기 생존 키워드) 도서 무료 제공

문의처

- 기획사업국 교육사업팀
- 한정훈 팀장 : 02-2186-9189 (jhhan@incruit.com)
- 김은희 사원 : 02-2186-9194 (ehkim@incruit.com)

대 덕 R&D 특 구 로 상 장 기 업 몰 린 다

대덕R&D특구 산업용지에 대한 계약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이미 상장됐거나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들과의 계약체결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대덕특구에 입주해 있거나 입주예정인 상장기업이나 상장 예정기업은 대략 6~7개에 이른다. 현재 케이엘테크가 입주해 기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우리ETI, 오디티, 브이케이, 카엘, 해피컴 등도 내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대덕특구로 본사를 옮길 계획이다. 이밖에 대덕R&D특구에서 유망기업으로 분류돼 곧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케이맥과 최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부터 예비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인텍플러스도 대덕특구에 안착해 코스닥 진입을 노리고 있다.

대덕특구 관계자는 “대덕R&D특구는 광역시권내에 산업단지가 입주해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면서 “특히 주변에 KAIST, ICU, 충남대 등 많은 대학이 있어 인력수급 측면에서 다른 산업단지보다 좋은 조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특구에는 현재 블루코드테크놀로지, 트루윈테크놀로지, 인바이오넷, 아이티, 아이디스, 오디티, 동양에스텍, 중앙백신연구소, 빛과전자 등 9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돼 있다.

대 덕 특 구 지 역 경 제 발 전 세 미 나 열 기

6월 8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서 열린 한은창립 55주년 기념 '대덕R&D특구와 지역경제발전' 학술세미나가 지역 학계, 관계, 기업계, 금융계의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잇단 주제발표와 토론 등으로 열기를 띠었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대덕특구 시대의 개막에 맞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대덕R&D특구 내 혁신클러스터의 성공 전략'과 '첨단기업과 전통기업 간 시너지효과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해법과 비전을 제시했다.

대전전략산업기획단 박준병 단장은 “우리나라 유일의 혁신클러스터인 대덕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덕밸리 첨단산업 미니클러스터의 구축 및 활성화 ▲초 광역 클러스터 구축 및 지역 클러스터와 사업연계 ▲World Best 클러스터 위상 정립 등의 3단계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AIST 신성철 부총장은 “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스톱 기술·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 ▲대기업 유치 ▲국제 경쟁력 있는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덕밸리벤처연합회 구본탁 회장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스웨덴의 시스타 같은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는 통합형 기업이 존재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특구의 상업화를 위해서는 ‘가치사슬 통합형 기업’의 출현이 필수적인 만큼 민간기업과 연구소 또는 대학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조인트 벤처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VD Scrap



▶ 2005년 6월 9일 전자신문 31면

벤처가 경제성장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창조적 마인드, 자기 분야에 정진하는 기업인의 자세, 올바른 벤처문화 정립과 더불어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함을 역설한 협회 신원호 부회장의 기고문



◀ 2005년 6월 9일 매일경제 A13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6월 8일 당정협의를 갖고 발표한 '벤처활성화 보완대책' 과 관련,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기획기사